

□ 모의논술 답안사례 평가 (1)

(가)의 기후 변화 협약은 대기권 내부의 온실가스 농도 계속적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물종 변화에 대한 범지구적 협약이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별화된 의무원칙 즉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곧 형평, 책임, 능력에 따라 부여된다. 이는 (제시문 나, 다, 라)에 의해 협상하기 어려운 이유가 제공된다.

먼저 제시문 (나)는 환경 문제는 범세계적임에 반해 이를 위한 환경 기술은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중요한 의미이다. (다)에 따르면 반세기 전부터 석유는 우리의 삶 곳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채택된 에너지 절약의 조치에도 현대의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석유가 차지한다. (라)의 사례에서 보면 1966년도 인도네시아 열대림은 1억4400만 헥타르이며 숲은 인도네시아의 면적 중 77%를 차지했다. 그러나 개발도중 배기가스 배출구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 개발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이뤄졌다. (제시문 나, 다, 라)를 근거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협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문 마)는 이 상황을 제공하며 야기한 모든 국가에 책임이 있으며 어느 국가라도 타국에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시문 바)는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는 각기 다른 이유, 다른 절차, 또한 각기 다른 주제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은 서로 다른 이해에 의해 역사적이고 문화적 특수성의 소산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사)는 19세기 후반 등장한 독점 자본주의에 관한 글이다. 이는 약소국을 식민화 하던 당시의 강대국들과 현대의 비공정 무역을 실시하는 다국적 기업과 경제적 우세에 있는 국가들을 동일시한다.

⇒ 위 글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례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관점을 도출하기 위해 (바)와 (사) 제시문을 비교적 쉽게 활용했던 반면, (마) 제시문의 경우에는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마) 제시문의 핵심정보를 누락하거나, (바)와 (사) 제시문과 나란히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마) 제시문은 다른 제시문에 비해 유추를 통해서 핵심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라) 제시문의 경우, 개도국의 삼림 파괴로만 제시문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명시적으로 핵심정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환경파괴라는 맥락 안에서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는 파괴의 주체가 '다국적 기업과 기름야자 농장'이라는 정보를 놓친 것이며, (바)와 (사) 제시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술 경향은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 논술문의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이다.

□ 모의논술 답안사례 평가 (2)

(가)는 늘어나는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에 대응하여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 가스 감축 부담의무를 행할 것을 주중한다. 이러한 의무 이해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형평, 책임,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의무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 다, 라)에 따르면 (가)에 제시된 협상 방식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나)는 지금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기술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제시한다. 환경 기술이 선진국에 편재되어 있는데, 선진국이 환경기술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려 하기에 이러한 환경 기술이 범지구적으로 사용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다)는 현재의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고 역설한다. 현재의 실생활의 편리성 등을 위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에 (가)에 따른 협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는 협약이 다국적 기업 등의 불법적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는 (라)에서 다국적 기업과 기름야자 농장이 플랜테이션을 위해 불법적으로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한편 (마, 바, 사)는 (가)에 따라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한다. (마, 바)에 따르면 각각의 분야 차이에 따라 그 분야를 서로 달리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즉,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기술의 분야와 경제적 목적을 위한 산업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에 따르면 현재 (라)의 제시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동남아시아에 대규모 농장을 건설하는 양상은 제국주의의 일면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국민들은 현재 자신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는 관점을 취해야한다.

⇒ 위의 글은 제시문들 간의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글이다. 많은 수의 글이 (마), (바), (사)의 위상을 재구조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제시문을 바탕으로 적절한 관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각 제시문에 대해 타당하게 이해하고 요약하고 있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줄 관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라는 구도 안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에 혼란을 겪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점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문제제기가 드러난 제시문을 근거로 활용하여 순환논법에 빠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 논술문의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이다.